



듀오 연애 칼럼 x 01

연애 스피치 질문에게 답하다

듀오 연애강사 이재목 님

당신에게 미션이 있다. 학교 혹은 같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닌, 초면의 이성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의 가로수길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 당신은 이 미션(?)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어떤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아마 당신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 '질문'부터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당신은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질문'의 기능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질문'이 좋은 '대화'로

첫 만남의 자리는 대부분 어색함과 경계심이 점철된 경직된 자리이다. 이럴 때 우린, 그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질문'을 한다. 침묵의 어색함을 깨고, 상대의 경직된 마음을 열어 호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질문'인 것이다. 하지만 '질문'이 때로는 서로의 경계심과 적대감을 더 키우기도 한다. 특히나 이성간의 만남, 소개팅, 맞선에서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지물쇠가 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질문'도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우리는 질문을 참 많이 한다. 어렸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현상에 대한 질문이고 청소년기에는 왜 꼭 그렇게 따라야 하는지 반항(?)을 목적으로 한 질문 즉 어른에 대한 반문이고, 성인이 되고서는 빠른 해답과 이익을 위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 이런 수많은 질문 중 남녀 간 소개팅이나 맞선과 같은 인연 만들기를 위한 질문은 무엇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을까?

“ 그것은 바로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한
정서적 교감행위이다. ”

쉽게 말해 모르는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학습 형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 긍정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런 본질을 모르고 무병비(?)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면, 상대는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고, 심지어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질문만 한다면, 상대는 대화가 아닌 강압적 조사로 느낄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은 '호구조사 나왔어요?'라는 상대의 극찬(?)을 받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애, 특히 이성과의 첫만남에서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한 방법



01

〈숫자로 답해야 하는 질문을 피하라〉

첫만남에서 상대에게 하는 '질문' 중 가장 유의해
야 하는 것이 '숫자'이다.

몇 살이세요?
형제가 몇 명이에요?
회사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밸리댄스를 취미로 하셨군요,
그럼 몇 년 배우셨어요?
한 달에 영화는 몇 편이나 보세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위의 질문들을 나열해 놓고 보면, 갑갑함을 지울 없
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질문이, 이른바 상대방과
의 교감을 위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
다.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횡수나 수를 세게끔 하
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면접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는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경계심을 더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숫자로 묻고 답해야 하는 질
문을 연속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02

〈질문을 하되, 답을 요구하지 마라〉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묻고 답하기를 강요 받았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한다.

다음 중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전지적 작가시점의 작품이 아닌 것은? 다
음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3 \cdot 4 = 14 / 5 \cdot 5 = 36 / 2 \cdot 6 = 13 / 8 \cdot 5 = ?$
(연애칼럼이다.
진짜로 위에 문제 몰입해서 풀지 마라.....)

내가 상대방과의 이성적 교감을 위해 하는 질문에
대해 상대는 정해진 방식의 대답을 할 이유도 필
요도 없다. 또 그런 식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3
개 이상할 경우 대화는 점점 재미없어지고 분위기
는 건조할 수 밖에 없다.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 친한 친구에게 밤늦
게 전화해서 뭐해? 라는 한마디로 우리는 한 시간
의 수다를 떨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에 맞춰보
세요? 라는 역공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상



대에 대해 불필요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애초에 그는 당신의 오디션이나 면접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되, 특정한 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호응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대화를 위한
Trigger에 불과하다. 이점을 명심하자.”

③ **〈질문하지 않고도 상대의 답을 얻어낼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유쾌하게〉**

질문은 처음 보는 상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칫 어떤 질문들은 상대에게 곤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나에 대한 호감을 상대에게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두 번 질문을 했을 때 상대

가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있다면, 질문보단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연애를 위한 미혼남녀간 대화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업무 또는 기타 외적인 관계에서 설불리 질문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프로모션 업무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할 대화가 종료되거나, 초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젊은 여성에게는
남자친구 있으시죠? / 없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에게는
결혼은 하셨죠? / 안 했다.

이런 식의 친밀감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선부른 질문은 이제 실례를 넘어 상대에게 가하는 폭력이 되곤 한다. 교감을 얻기 위해 하는 질문엔 칭찬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럴 땐 직설적인 질문보단 배려있는 한마디가 더 큰 친밀감을

형성한다. 몇 살이세요? 라는 말로 친밀감이 상승할 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 굉장히 동안이세요 라는 칭찬으로 상대방의 호감은 물론 실제 나이까지 기분 좋게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직설적인 질문보다, 칭찬이 섞인 질문은 상대를 기분 좋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04

〈자신이 한 질문에 적절한 참여하기〉

대화는 쌍방향이다. 질문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일방적인 질문과 대답의 관계는 결코 이상적인 대화의 모습이 아니다. 또 상대가 나한테 무엇이든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만 상대에게 질문하는 것도, 기자가 아닌 질문자에게도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 경우 자신이 상대에게 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대 대답에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여 질문의 가짓수를 줄이고 건조한 일문일답 형태의 대화가 아닌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신동엽이나 유재석의 토크쇼를 보면 주제 하나를 가지고 게스트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맞장구와 자신의 생각, 그리고 경험담까지 곁들인다. 그렇기에 대화주제에 대한 게스트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언제까지나
질문은 시작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최종 아니다.”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누군가와 첫 만남을 준비한다면, 질의응답 식의 불편하고 무료한 질문 대신 매력적인 질문과 함께 인연의 시작을 준비하길 바란다.

PROFILE



듀오 이재목 강사

소속 듀오 이벤트사업부

학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3대 학생회장 출신)

자격 레크레이션 1급, 웃음치료사 1급,
편리더십 지도자 1급,
코미디TV 공채개그맨 대상수상,
서울시 주최 성교육 프로그램 수료

Blog <http://blog.daum.net/thebestseason>

저서 연애야 말해봐(2009년),
연애종결서(2011년),
잡자는 숲속의 공주는 잠만 잤다.(2015)

Mail gagman2000@duonet.com

너와 나의 입장차이

연애(戀愛)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경험

후배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했다. 남녀가 헤어진 이유를 따지고 보면 끝도 없지만, 후배가 속상하다고 말한 것은 남자친구의 극단적인 태도, 바로 그런 거였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차를 타고 이곳 저곳 구경을 다니다가 피곤함에 옆자리에서 졸았다고 했다. 함께 간 여행에서 운전자인 남자친구를 배려해서 그러면 안되지만, 전날 야근에 갑작스럽게 떠난 여행에서 신나게 이곳 저곳 즐겁게 논 탓에 졸음이 왔던 것이다. 그것을 이해 못할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후배가 졸음이 들었던 찰나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 대한 섭섭함으로 내가 아파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옆에서 잠이 들 수 있냐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듀오 아카데미사업부 이동주 강사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그 만남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별 것도 아니지만 별 것이 된 채로 그렇게 둘은 이별을 했다.

내가 알기로는 후배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편을 모른 채 하는 기본이 없는 아이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유독 잠에는 굉장히 취약(?)했다. 젊은 나이에 신나게 놀아보자고 의기투합하던 그때도, 말이 많은 그 아이가 조용해서 쳐다보면 어느새 눈이 반쯤 감겨서 졸음과 사투하던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서 희식이다 야근이다 늦게 모인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었다. 물론 그 후배의 패턴(?)을 잘 알기에 극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 '왜 좀 챙겨주지 그랬어? 야 너도 참 너무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저녁 잠이 많은 그 아이는 대신 아침에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함께 하기로 결정한 무언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발로 뛰던 열정 가득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처럼 섭섭함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 후배를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말에도 동조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후배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자친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에 연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너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네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어, 나는 정말 그때 너무 아팠고, 매순간에 네가 보여줬던 태도는 나를 위한 배려는 없었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일년 간 연애하면서 후배의 패턴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아니었겠지만, 분명 그가 원하는 섬세하게 그를 챙겨주던 그녀는 아니었던 것이다. 반복되는 만남에서 서로에 대한 입장차이는 간격을 좁힐 수 없었고 '너는 너', '나는 나' 로 그 커플은 각자의 길을 떠났다.

물론 남녀간의 연애에서 헤어지는 이유를 한가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이유뿐이겠냐 마는 늘 우리의 연애에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다만 한 곳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될지 모른다.

작가 임경선은 에세이<태도의 관하여>에서 "연애란 부모가 나를 사랑한 이래로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긍정을 받는 유일한 경험일지도 모른다. 더불어 나밖에 몰랐던 내가 타인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 고통스러워도, 손해 본다고 해도,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고 한다." 고 말했다. 연애는 분명 타인으로부터 긍정을 받는 유일한 경험인

“
 나에겐
 나의 입장이 있고
 너에겐
 너의 입장이 있다
 ”



데,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습관으로 타인으로부터 너와 내가 다르다고, 너는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쩌면 생각보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그 후배는 다행스럽게도 그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과 모임이 있을 때는 의식해서 노력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귀가를 하는 등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하니 뒤늦었지만 그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그래서 연애는 어떤 이유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경험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후배가 어떻게 변할지 그대로 인정받기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애에 있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남과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변화는 조금 생긴 것 같다.

나에겐 나의 입장(立場)이 있고, 당신에게도 당신의 입장(立場)이 있다. 예전에 친구들과 농담처럼 연애가 안 풀려 속상하면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건지 모르겠다'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또 노력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변명도 이해 받기도 싫다, 그냥 나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연애에서 존재하는 나도 몰랐던 너와 나의 입장차이가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나의 태도가 상대방을 참지 못하게 만든 건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 생각이 변하고 나의 태도가 변한다. 또 다른 내가 되기도 한다. 사실 연애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것은 서로를 그대로 이해하는 일인데,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건 늘 어렵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PROFILE



듀오아카데미 교육기획 및 강사

이동주 강사

듀오 노블레스 회원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담당했으며, 현재는 듀오 아카데미에서 기업과 회원들 대상 CS교육, 기본매너와 예절교육,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 코칭, 여성특화 커리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시대의 요구? 뭘 애길 할까?

화술야화 1.

그리스신화 - 헤르메스 편

듀오 아카데미사업부 박시현 팀장

자주 보지 못하는 내 막내조카 이름은 소윤이다. 진주로 내려간 L공사 다니는 내 동생이 얼마 전에 얻은 막내 딸이다. 오랜만에 보자마자 내가 한 첫 말은 '소윤아 고모야' 고모 해 봐... 고모.. 이렇게 아직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 어린양에게 나의 존재를 강요하는 짓을 하고 있었다. 아기가 놀란 얼굴을 하자 혼자서 좋아했다.

조카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경우일거다. 오랜만에 보는 아줌마, 갑자기 자기 이름도 아니고 가족간 서열정리 차원에서 이빠도 엄마도 아닌 고모를 외치고 혼잣말을 해 가며 엄마보다 고모를 해 보라고 강요한다. 어린 조카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진주로 내려가 집 근처 산책을 나가면 사투리까지 써가며 정신 없이 떠드는 동네 아줌마들에게 둘러싸여 어리둥절한데, 이 사람 저 사람 한 마디 씩 떠들 때 얼마나 다양한 소리에 놀랄까? 아마 아이들에겐 이 시간이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듣고 흉내 내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다.



“

말의 기술은

“무엇”보다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

우리는 태어나서 몇 년간은 말하기를 강요 당하는 시기를 거친다. 소리라도 날라 치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에 웅알이라도 하는 것이 엄마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자 자식 된 의무 정도로 이해를 하지 않을까?

아기 때 웅알이가 몇 개의 단어로 늘어나 한 사람으로 당당히 말로서 요구라는 것을 할라 치면 교실에서 무섭게 찌려보는 선생님의 눈초리에서 조용히 하라는 무언의 시간도 몇 년씩 보내게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희망을 주고 선생님에게 자랑스런 새싹으로 인정받다가 사랑과 연애를 거쳐 결혼생활에서도 배우자에게 최고점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체 언제 말을 하라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말이 없어 점잖다는 칭찬으로 이어지면서 어느새 말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받다가 대학에선 여럿이서 애길 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 방에 우글우글 모여 있다 보면 말보다 연애를 먼저 배우게 되기도 한다. 취업면접 시에는 몸 개



그라도 하면서 옆 사람과 다르게 말하기를 연구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우리네 화법인생이다.

나름 전문가양성을 위해 고객응대 자세에서 면접을 위한 취업교육까지 지난 20년간 화술전문가로서 많은 경험과 연습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요즘 진정한 화법을 말하기가 고민 될 때가 많아진다. 물론 시대가 요구하는 화술이 다르기 때문인데 요즘 드라마 한편을 보고 애길 하자고 작정해도 주인공이 원래 순한 여자였지만 중간에 무서운 여자로 돌변한 이유를 드라마 한편으로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보고 판단하기도 힘든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대화라는 말로 소통이라는 감정을 느끼려면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말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내가 좀 아는 양 말하기는 재수없어 보이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내게 한가지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 “내가 묻고 싶네요~”라고 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하는 스



헤르메스에 속아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먹이는 헤라. 헤라클레스의 젖 빠는 힘에 놀라 뿌리치자 하늘에 젖이 뿌려져 은하수가 되었다.

타일을 분석하며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말을 들길 원할까.. 어쩌해야 한 사람의 화법이 돌변이라는 급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가 데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더구나 여자를 웃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의 단어는 배워도 말로 표현하긴 쉽지 않다. 말의 기술은 “무엇”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언제 누구랑 어떻게 말하게 되는지 생각하자. 그냥 멍목적인 목소리 연습과 발음 훈련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물어본다면 나는 큰 소리로 “아니다”라고 말한다. 내 얼굴 표정과 말은 일치하는지? 이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자. 자기가 알아서 말하게 만들어서 잘 듣고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뜻

으로 멋지게 드라마 주인공처럼 흥내라도 비슷하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취업면접 보듯이 자기 출신 배경과 학교위치를 줄줄 읊을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스토리 형식으로 슬프지 않게 힘들었고 인생역경 속에서도 인덕은 있었으며 가끔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 좋아하는 음식을 위해 멀리까지 갈수 있다는 멋과 맛을 아는 인성 자랑까지 적당히 훈훈하게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형식은 연애행식의 기본 화법 순서로 나쁘지 않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식과 연륜이 늘고 인격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나이는 그냥 먹을 수 있으나 인간은 저절로 나이지 않는다. 아마 말도 많이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냥 많이 하면 소음이다. 말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중에 화술의 위력을 가지고 인간과 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파워를 누린 달변가를 소개한다면 날개가 달린 신발과 지팡이로 상징되고 있는 헤르메스이다. 제우스 곁을 항상 지키는 헤르메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제우스는 신과 인간의 영역에서도 유명한 바람둥이였다. 최고의 신중의 신이지만 그의 아내 헤라의 눈치 보는 요즘 보통의 남자와 흡사하며 인간을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내 화장품 이름으로도 유명한 헤라여신은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질투 많은 보통의 신경질적인 인물이다. 예쁘면 다 한 성질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이론인가 보다. 제우스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은 모조리 죽었지만 헤르메스의 새치 혀에 놀아나 제일 미워했던 헤라클레스를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릴 정도로 헤르메스는 신들의 세상에서도 유명한 화술의 신이었다. 실제로 그는 신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신들의

화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 능력밖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을 잘하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았던 것 같다. 도둑질과 장사꾼의 신이며 목동과 여행자의 신, 전령의 신, 교역과 통신의 신 뿐만 아니라 행운의 신이요. 인류 최초의 여인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도 바로 헤르메스였다. 눈치와 화려한 언변으로 제우스와 헤라를 손에 쥐고 흔들 정도로 신을 능멸한 자로서 본인도 제우스의 바람으로 태어난 자식이었으나 헤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제우스를 구해주고 집안의 평화를 지킨 인물로 많은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감언이설 때문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헤르메스와 같은 존재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나의 말의 주인은 나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감언이설……오늘부터 생각해 보자.

PROFILE



듀오아카데미 강사
박시현 팀장

전문화술 특강 및 기업맞춤 교육기획/
회원분석교육 전문가로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및
(주)한진그룹 서비스아카데미 강사 역임했고
MBC아카데미 리포트& 아나운서 /
쇼호스트과정 화술교육강의를 진행

현재 듀오/듀오월드 직원대상 커플매니저 웨딩플래너
양성전문가로 활동하며 기업CS교육과 상담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개설한 국내 스타일 코칭교육 선두주자로서 활동 중이다.